

어휘 형성 과정과 제약: 제약 기반의 형태 통사론 시론¹⁾

박 병 수

1. 서론

어휘 형성에는 굴절과 파생에 의한 것, 합성에 의한 것, 음운 교체에 의한 것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굴절과 파생에 의한 어휘 형성은 어간에 굴절 어미와 파생 어미가 붙어서 새로운 어휘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합성에 의한 것은 어근 또는 단어들이 결합하여 복합적인 새로운 표현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음운 교체에 의하여 생기는 것은 ‘출출/출출, 쓱쓱/씩씩/씩씩’ 등 중첩 현상에서 나타난다. 이 중에서 우리는 주로 굴절과 파생 어휘 형성에 초점을 맞추되, 특히 동사와 관련 된 부분만을 다루려고 한다.

굴절 어휘 형성의 예는 아래 (1)과 같다. ‘잡(다)’라는 동사는 어근 ‘잡’ 다음에 다양한 종류의 어미들이 붙어서 여러가지 단어를 형성한다.

- (1) a. 잡+다
- b. 잡+는+다
- c. 잡+히+었+다
- d. 잡+으시+었+다
- e. 잡+히+시+었+다
- f. 잡+히+시+었+습니까
- g. 잡+아라
- h. 잡+자
- i. 잡+으시+버시오
- j. 잡+으시+버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어간 뒤에 나오는 어미들이 일정한 순서를 지키고 있다. 이 순서를 위배하면 모두 비문(ungrammatical)이 된다.²⁾

- (2) a. *잡+았+으시+다
- b. *잡+으시+히+습니까+었

1) 이 연구는 경희대학교 1994년도 연구소 지원 연구비에 의한 연구 결과임.
 2) 비문 ungrammatical 과 정문 grammatical 은 원래 문장의 비정형 ill-formedness 와 정형 well-formedness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지만 이 글에서는 그 뜻을 약간 확장해서 형태론적 비정형과 정형에도 쓰기로 한다.

또한 어떤 어미들 간에는 여러 가지 개별적인 공기 제약이 있다.

- (3) a. *잡+는+자
- b. *잡+겠+어라
- c. *잡+으시+자
- d. *잡+으시+어라

또 '되다, 있다, 앓다, 보다' 등 이른 바 “보조동사”들은 ‘-게, -고, -지, -어’ 등과 같은 특별한 활용 어미들과 관련되어 있다. 아래 예들이 보이는 바와 같이 활용 어미들과 조동사들 사이에는 엄격한 공기 제약이 있다.

- (4) a. 잡게/*잡고/*잡지/*잡아 되다
- b. 잡고/*잡게/*잡지/*잡아 있다
- c. 잡지/*잡게/*잡고/*잡아 앓다
- d. 잡아/*잡게/*잡고/*잡지 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우리는 많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굴절과 파생어미들이 붙는 이러한 단어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통사 구조에 나타나는가? 또 이러한 단어들이 어휘부 Lexicon에 어떻게 등재되는가? (2), (3), (4)의 비문들을 어떻게 차단하는가? 첫째 문제는 형태론과 통사론의 접합 (morphology-syntax interface)의 문제이고, 둘째 문제는 어휘 형성 과정 (word formation)의 문제이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기존의 접근 방법들을 간략하게 재검토하고 Pollard와 Sag(1987,1994)의 핵어 중심 구구조 문법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HPSG의 새로운 틀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제약 기반에 의한 형태 통사론 Constraint-Based Korean Morphosyntax=CBM의 수립에 기여하려 한다.

어휘 형성의 문제는 생성 문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속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 질문들은 생성 문법 40년 역사상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고 오늘도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 문제는 형태론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문제를 파고 들어가면 결국 언어 구조의 전영역에 파급되는 광범위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을 곧 깨닫게 된다. 최근에 전상범(1995: 649)는 “생성 문법의 역사는 어휘부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문제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넓게 퍼져 있는지 지적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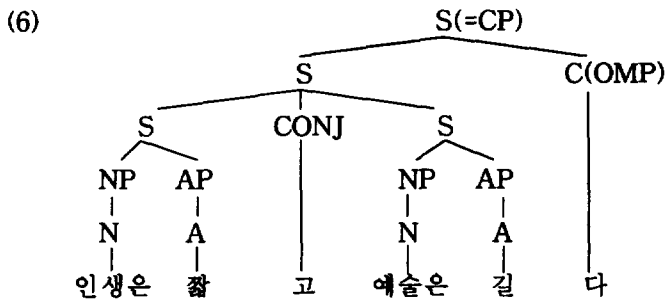
우리는 다음 순서로 논의를 진행시키려고 한다. 2절에서 어휘 형성 과정을 통하여 생긴 복합적인 표현들이 통사 구조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룬다. 특히 GB나 Minimalist Program과 같은 변형 생성 문법의 방법과 비변형적 방법을 비교 검토하고 Lexical Integrity Hypothesis (어휘 완전성의 가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다. 3절에서 어휘부에서 이들 어휘 형성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하여 최근 HPSG 학자들과 어휘주의자들(Lexicalist)이 제시하는 어휘주의적, 제약 기반의 접근 방법을 탐구한다.³⁾

2.1. 구성 성분 분석과 굴절 어미의 통사적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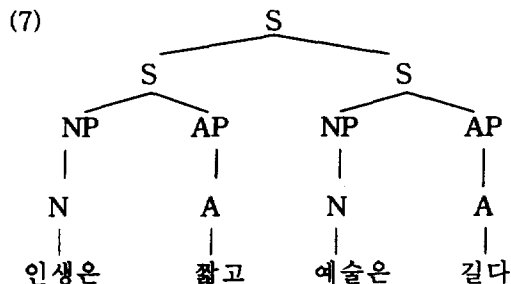
변형 생성 문법에서는 굴절 어미를 통사적으로 독립된 단위로 보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Park (1988)에서 굴절 어미는 독립된 통사 단위로 다룰 것이 아니라 단어의 일부로 다루어야 옳다고 보고 일반 구구조 문법 Generalized Phrase Structure Grammar (GPSG)의 자질 이론을 활용하여 이를 다루는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방법은 오늘 날의 용어로 말하자면 '어휘 완전성의 원리'에 충실한 방향으로 통사 기술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었다. 거기에서 필자가 제시한 논거는 기본적으로 이론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한 가지 경험적 논거가 있었다면 그것은 문장의 구성 성분 분석 constituent analysis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아래 문장 (5)에서 '길고'와 '짧다'와 같은 표현이 통사 구조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6)은 GB의 방식이고 (7)은 GPSG의 방식이다. HPSG의 방식도 구성 성분의 기술에 관한 한 (7)과 유사하다.

(5)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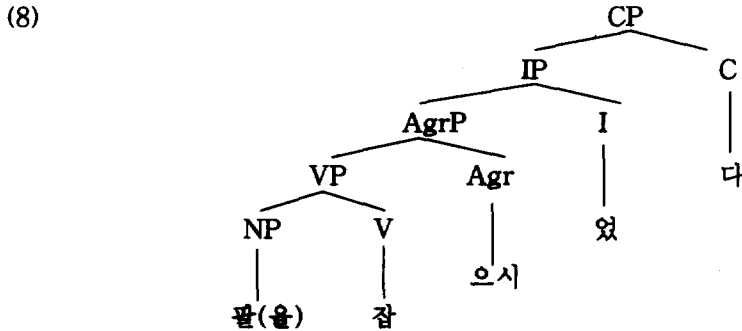


(6)의 방식은 '-고'나 '-다' 같은 어미가 그 어간과 구성 성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등 문장의 구성 성분 분석이 왜곡되어 있고 (7)은 그것이 직접 반영되어 있다. 그러므로 다른 조건이 다 같다면 구성 성분 분석을 제대로 한 (7)이 (6)보다 낫다. 이것이 Park (1988)에서 시사한 경험적 논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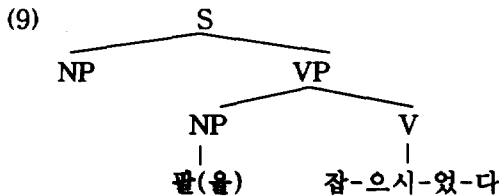


3) 제약 기반의 접근에 관하여서는 주로 김종복(1992)의 제안윤 받아들이고 필요한 곳에서 (1995)를 참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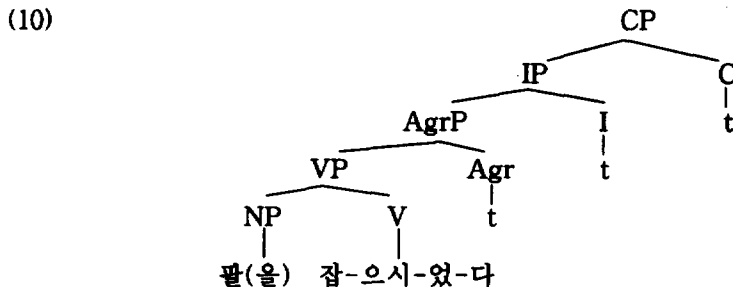
굴절 어미가 좀 더 많이 나타나는 예를 한 가지 더 보도록 하자. 가령 (1d) '잡-으시-었-다'에서 이른 바 세 개의 기능 범주 '으시', '었', '다'를 다 통사적 독립 단위로 기술하게 되면 구성 성분의 왜곡된 모양이 더욱 뚜렷해진다.



'팔을 잡', '팔을 잡으시', '팔을 잡으시었' 등이 모두 구성 성분을 이룬다고 주장하는 셈이 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잡으시었다'를 한 단어로 보고 이를 그대로 통사 구조에 반영시키면서 동사 활용의 문제는 완전히 어휘부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했던 것이 Park (1988)이다. CP, C, IP, I 등의 굴절 기능 범주가 일절 나타나지 않으며 '잡으시었다'가 온전히 하나의 동사로 통사 구조에 나타나는 아래와 같은 구조로 그것을 요약할 수 있다. 여기서는 '팔을 잡으시었다'가 하나의 구성 성분이 된다.



그러나 변형적 접근으로 구성 성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른 바 Head Movement 규칙 등 이동 규칙들을 적용하면 결국 아래 (10)과 같은 표면 구조가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잡으시었다'가 하나의 동사로 나타나게 되므로 구성 성분의 문제점도 해결된다.



이와 같이 해서 얻은 표면 구조는 여러 개의 흔적이 개재하고 있는 점이라든가 심층 구조에서 표면 구조까지 먼 길을 돌아 와야 한다는 점에서 구성 성분에 대한 인식이 간접적이고 우회적이기는 하지만 그런 대로 성분 구조는 올바르게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도출적 derivational 방법⁴⁾과는 달리 GPSG나 HPSG와 같은 리얼리스트 생성 문법 이론에는 심층, 표면의 이분법이 없고 통사 구조는 표면 구조 뿐이며 구성 성분 관계가 직접적으로 구조에 반영된다. 즉 (9)와 같은 구조가 그대로 HPSG의 구조가 된다. 이러한 방식을 비도출적 nonderivational 방식이라고 한다. Park (1988)은 도출적 방식이 구성 성분을 올바르게 기술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했으나, 우리는 이것이 정확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과연 이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었'이나 '다' 등 어미들을 도출적 방식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한지, 비도출적 방식으로 다루는 것이 더 바람직한지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오직 경험적 증거에 바탕을 둔 논거 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명미 Young-mee Yu Cho와 Sells (1992)의 연구와 윤혜석(1993, 1994)의 연구는 크게 주목할 만하다. 전자는 비도출적 어휘주의적 방식을, 후자는 도출적 방식을 옹호하는 경험적 논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이들을 차례대로 검토한다.

2.2. 형태 음운론적 증거

유명미는 한국어의 격 조사들과 동사 활용 접사들 (굴절과 파생 접사 어미들을 포함해서)에 대하여 어휘론적 접근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 논거를 형태 음운론 현상에서 이끌어 내는 작업을 일관성 있게 수행해 왔다. (유명미 (1989), Sells와 유명미 (1992) 등) 이 견해는 어휘 완전성의 가설을 지지하는 비도출적 통사론과 잘 조화된다.

이들은 음운론적 제약에 착안하여 '-었', '-다' 등의 요소들이 단어 (morphological word)의 부분들이어서 통사적으로 독립할 수 없는 요소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 다시 말하면 그것들이 어휘부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형태 음운론적으로 논증한다.

첫째 논거는 'ㅅ, ㅆ, ㅈ, ㅊ' 등이 음절 말음일 때 'ㄷ'로 발음되는 말음절 중립화 Coda Neutralization(CN) 현상에서 나온다.

- (11) a. 옷==>[으], 낮==>[날]
 b. 꽃 이튿==>[꼬디름, *꼬치름], 웃웃==>[우든, *우순]
 c. 옷 입어라==>[오디버라, *오시버라]

4) 이 글에서 "도출적 vs. 비도출적" 접근이라는 용어는 Pollard & Sag (1994)를 따라 매우 넓은 범위의 뜻으로 쓴다. GB와 같이 문법적 변형에 의존하는 일체의 생성 통사론, 형태 음운론을 도출적 접근이라고 부르고 HPSG와 같이 변형 과정이 없고 심층과 표면 구조의 구분이 없는 단일 계층(mono-stratal)의 생성 이론을 비도출적 접근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음절 말음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뒤따라 오면 이 음절 말음이 그 어미와 음절을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CN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음절화 현상은 단어 (morphological word) 안에서만 일어난다.

- (12) a. 옷-을==>[오슬, *오들], 옷-이==>[오시, *오들]
 b. 옷-음==>[우슴, *우듬]
 c. 맛-있-다==>[마신다, *마딘다], 멋-있-다==>[머신다, *머딘다]

‘옷음’이나 ‘옷을’ 또는 ‘맛있다’는 하나의 단어(morphological word)이므로 “스”이 음절화 되고 따라서 CN은 일어나지 않는다. 반면에 (11b)의 경우는 합성어이어서 두 개의 완전한 단어(phonological word)가 연결된 것이므로 “스”음절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또 (11c)는 단어와 단어가 연결된 구이므로 역시 “스”음절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하여 CN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동사의 음절 말음 ‘스’이 과거 시제 ‘-었’ 과 같은 접사와 연결될 때는 이러한 중화 과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점이 중요하다.

- (13) 옷-었-다==>[우선편다, *우덜편다], 벗-었-다==>[버선편다, *버덜편다] 등등

이로 보아 ‘옷-었-다’나 ‘벗-었-다’는 하나의 단어(morphological word) 임에 틀림 없다. 만약 이들의 형태소들이 각기 독립적인 통사 단위라면 CN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게 된다. 독립적인 단위라면 두 개의 완전한 단어 (phonological word) 사이에서처럼 음절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CN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음절화가 일어났고 따라서 CN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옷-었-다’의 각 요소들을 완전한 단어로 보는 것은 불가하다. ‘옷-었-다’는 (11)과 같이 어간에 어미가 붙어 어휘부에서 형성된 하나의 단어 (morphological word)로 보아야 한다.

둘째, ‘ㄷ’ 또는 ‘ㅌ’가 전설 고모음 ‘이’ 앞에서 ‘ㅈ’ 또는 ‘ㅊ’으로 되는 구개음화 현상을 활용한다. 구개음화는 어근 또는 어간과 어미 사이에서만 일어난다. 합성어나 구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 (13') a. 갈-이==>[가치], 해 돌-이==>[해도지, *해도디]
 b. 발-이랑==>[바디랑, *바지랑], 발 일구고==>[바딜구고, *바질구고]

그런데 격 조사 ‘이’나 파생 어미 ‘이, 히’ 앞에서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난다.

- (14) 발-이==>[바치, 바티], 굳+히+다==>[구치다, *구티다]

따라서 ‘발-이 (기름지다), 굳-히-다’는 모두 한 단어 (morphological word)로 다루어야 한다.

셋째, 경음화 현상은 형태소와 형태소 사이, 합성어인 경우에는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두 단어가 구를 이루는 구 수준에서는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15) a. 작-고==>[작꼬, *작고]

b. 술집==>[술집, *술집]

(16) a. 책 가져와==>[책 가져와, *책 가져와]

b. 우리가 살 집==>[우리가 살 집, *우리가 살 집]

그런데 아래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미 “다”가 반드시 경음화 되는 것을 보면 ‘먹-다’나 ‘보-았-다’가 적어도 구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면 그것이 구가 아닐 때 그것의 한 부분인 ‘-다’나 ‘-었’이 단어가 될 수가 없는 것 또한 확실하다.

(17) a. 먹-다==>[먹따, *먹다]

b. 보-았-다==>[보안따, *보안다]

이상 세 음운 현상의 공통점은 그 현상이 일어나는 조건이 형태론적이라는 것이다. 즉 그 현상은 모두 어간과 어미 사이에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이 현상을 설명하는 규칙은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는 형태적 정보가 있는 곳에서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어휘부에서 적용되는 어휘 규칙이 바로 그러한 규칙이다. 어휘 규칙을 적용하여 어휘를 형성함과 동시에 필요한 형태 음운 규칙도 여기서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도출적 방식에는 이 길이 막혀 있다. 이 방식에서는 어간과 어미가 모두 통사적 최소 단위가 되어 있어서 일단 통사 구조에 들어 가면 어간이나 어미의 정체성이 없어진다. 그것들은 모두 독립적인 통사적 단어일 뿐 어간인지 어미인지 구별할 정보가 없다. 그것들을 이동시켜 한 자리에 모아 단어를 형성하게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 심층에 없는 형태적 정보가 표면에 가서 생길 수 없는 일이다. 형태 정보가 없는 통사 구조에서 형태 음운 규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예컨대, 도출적 방식의 통사 구조에 단어로 나타난 기능 범주 ‘었’은 그것이 어미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형태적 정보가 없으므로 ‘웃-었’으로 연결되었을 때 “ㅅ” 음절화 규칙을 적용해야 하는지 적용해서는 안되는지 알 수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도출적 방식은 그 발음이 ‘우턴’이 아니라 ‘우션’이 되는 것을 보장할 방법이 없다. 더 말할 필요 없이, 이 어려운은 활용 어미 (기능 범주)를 통사적 독립 단위 (=통사적 단어)로 다루는 데서 온 것이다.⁵⁾

넷째, 유명미 (1991)은 “만”, “도”와 같은 특수 조사 (또는 한정사 delimiters)의 첨가 현상과 관련되는 또다른 논거를 제시한다. 이들 특수 조사는 명사 뿐만 아니라 동사나 형용사에도 붙는데, 유명미(1991)은 이것이 동사에 첨가될 때 하나의 음운 제약이 있음을 발견했다.

5) 그러나 Minimalist Program의 “checking 이론”에 따를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 이 이론에 의하면 단어는 어휘부에서 완전히 형성되고 그렇게 형성된 단어를 통사 구조에 삽입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checking 이론은 적어도 어휘와 통사 구조의 관계에 관한한 우리가 주장하는 비도출적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Minimalist Program의 “어휘 삽입 과정”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도 불분명하여 단순 비교는 하기 어렵다.

- (18) a. 잡아-도 보았다, 먹어-만 주었다, 들어-만 가자, 휘둘러-도 보았다
 b. *자-도 보았다, *나-만 가자, *가-도 주었다, *해-는 보았지
 Cf. 자 보았다, 나 가자, 가 주었다, 해 보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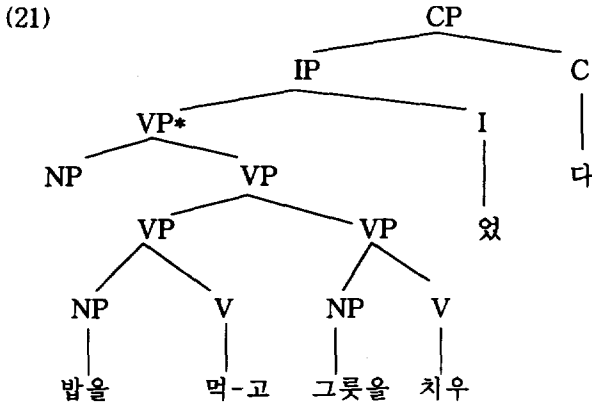
특수 조사는 단음절 어근에 붙을 수 없다. 특수 조사가 붙으려면 어근이 적어도 두 음절 이상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음절 제약을 통사 규칙으로는 처리할 방법이 없다. 더구나 이 제약은 동사에 특수 조사가 첨가 될 때에만 적용되므로 형태적 정보가 보존되어 있을 때에 처리해야 한다. 어휘부의 어형성 과정에서 적용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런 방법이다. 어떤 이론이든 특수 조사를 통사적으로 독립 시켜 단어로 다루려고 한다면 이 제약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2.3. 어미 “-고”의 문제: 도출적 방식의 문제점

윤혜석(1994)의 일차적인 관심사는 Minimalist Program의 소위 Checking 접근 방식을 비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논의의 과정에서 기능 범주의 형태 통사적 역할의 문제가 하나의 핵심 과제로 되어 있으며 여기서 이들 기능 범주들을 도출적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 그의 논거는 아래와 같은 등위 구문에 토대를 둔다.

- (19) a. 존이 밥을 먹고 그릇을 치우었다 (=치웠다).
 b. 존이 밥을 먹고 메리가 그릇을 치우었다.
- (20) a. 존이 밥을 먹었고 그릇을 치우었다.
 b. 존이 밥을 먹었고 메리가 그릇을 치우었다.

(19)에서는 앞의 등위절에 시제 표시가 없고 뒤의 등위절에만 그것이 있는데 (20)에는 양쪽에 시제 표시가 다 나타나 있다. 윤혜석(1994)는 (19)는 VP ‘밥을 먹’과 VP ‘그릇을 치우’의 등위 이접 (즉 VP conjunction)이고, (20)은 IP ‘존이 밥을 먹었’과 IP ‘메리가 그릇을 치우었’의 등위 이접 (즉 IP conjunction)이라고 설명한다. (20)에서는 앞 뒤 절 (conjunct)이 다 과거 어미를 갖고 있어서 각기 과거 시제를 나타내므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19)에는 과거 시제 어미가 하나 밖에 없는데, 이것이 문제가 된다. 앞 절(first conjunct)에 과거 시제 어미 ‘-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사의 뜻이 과거로 이해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 이유는 ‘-었’이 앞 절과 뒷 절(second conjunct)에 같이 걸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설명이 가능한 설명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밥을 먹’과 ‘그릇을 치우’를 등위절로 연결하고 과거 어미 ‘-었’이 그것과 “딸”(sister) 관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이 '-었'이 이접된 VP를 통하여 앞의 두 원형 동사를 다 수식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 시제 '-었'이 동사 '치우'와 떨어져서 통사적으로 독립하지 않고는 그것이 그 앞에 있는 동사 '먹고'를 수식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하는 부분이다. 즉 '-었'이 통사적으로 독립된 요소, 다시 말하면, 하나의 단어(syntactic word)가 아니라면, 등위절과 관련된 위의 사실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 논거가 유효하다면 적어도 등위 구문 현상을 올바르게 설명하기 위하여 '었'과 같은 형태소를 통사적으로 독립시켜 (19)와 같이 분석하는 변형 생성 이론의 도출적 방식이 강력한 경험적 뒷받침을 받게 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 논거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V-고 V" 구문을 좀 더 면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서 이 구문의 "고"의 기능에 대해서도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구문은 의미적으로나 통사적으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 의미적으로 이 구문은 두 동작의 연속적 발생을 나타낸다. 즉 '... 먹고 ... 치운다'고 하면 먹는 동작에 연이어서 치우는 동작이 일어난다는 뜻을 나타낸다. 이 점은 조세연 (1995)이 상세히 논하고 있다. 아래 좀 더 많은 예들을 보라.

- (22) a. 메리는 밑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했다.
 b. 존은 번호와 이름을 쓰고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
 c. 메리는 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 갔다.
 d. 존은 메리의 손을 잡고 물속에 뛰어들었다.

여기 쓰인 "V₁-고 V₂" 구문은 모두 V₁ 동작이 먼저 일어나고 곧 V₂ 동작이 일어나는 상황을 표현한다. 그래서 (22a)는 밑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색칠을 하는 동작이 이어지는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또 (22b)는 번호와 이름을 쓴 다음에 문제 풀이에 착수한 상황이다. (22c)와 (22d)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V₁-고 V₂" 구문의 예에서 V₂가 과거 시제이고 V₁은 무시제인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V₁이 과거 시제로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 (23) a. 메리는 밑그림을 그렸고 색칠을 했다.
- b. 존은 번호와 이름을 썼고 문제를 풀기 시작 했다.

이 경우 V_1 의 동작이 V_2 의 동작을 반드시 선행한다는 보장이 없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두 개의 동작이 일단 별개의 동작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 그들이 연결되어 하나의 활동으로 이해 될 수도 있고 두 가지 별개의 활동으로 이해 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하나의 활동으로만 이해되는 (22)의 경우와 뚜렷이 구별된다. 그리고 (22)에서는 V_2 의 동작이 주된 동작이고 V_1 의 동작이 부수적인 동작으로 이해되는 데 반하여 (23)에서는 두 동작 사이에 그러한 주종의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요약하면, 이 구문이 연속적인 한 동작의 뜻을 가지려면 V_1 이 반드시 무시제 원형 동사이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제약은 어디에서 연유하는가? 만약 ‘-고’가 등위절의 ‘-고’라면 이것은 매우 이상한 제약이다. 등위절에 그러한 시제 제약이 있다는 것은 매우 생소하다. 등위절의 시제는 표현하는 상황에 따라 다양하고 자유스럽다.

- (24) a. 그들은 그 때 춤을 추었고 우리는 지금 노래를 부른다.
- b. 그들은 지금 춤을 추고 우리는 그 때 노래를 불렀다.
- c. 그들은 그 때 춤을 추었고 지금은 노래를 부른다.
- d. 그들은 지금 춤을 추고 그 때는 노래를 불렀다.

그렇다면 (22)의 이 ‘-고’는 등위절의 ‘-고’와 같은 것일 수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마 “-게, -고, -지, -어”의 ‘-고’가 아닌가 하는 것이 우리의 대답이다. (김종복 (1992, 1995) 및 조세연 (199?) 참조.) 반드시 무시제 원형 동사 형태에만 붙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들 활용 어미이기 때문이다.

- (25) a. 춤을 추고/*추었고 있었다
- b. 노래를 부르고/*불렀고 싶었다.

만약 “ V_1 -고 V_2 ” 구문의 ‘-고’가 등위절의 ‘-고’가 아니라 활용 어미 ‘-고’라는 우리의 지적이 옳다면 이 구문의 의미가 연속 동작의 뜻일 경우 왜 V_1 이 무시제 원형이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자동적으로 설명된다. 그것은 단순히 활용 어미 ‘-고’의 어휘적 특성에서 연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다. “V-활용 어미 ‘고’” 형태는 반드시 그것을 요구하는 (주)동사가 있어야 한다. 가령 (25a)에서의 ‘있었다’ 라든가 (25b)에서의 ‘싶었다’ 같은 것이 그러한 동사이다. “ V_1 -고 V_2 ” 구문에는 그러한 동사 없이 “ V_1 -고”가 홀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다. 조세연(1995)는 이것을 이접사 “-고1”과 구별하여 “-고2”라고 했으나 이것이 (25)의 ‘-고’와 같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언급이 없다. 이것이 주동사 없이 홀로 쓰이는 특징이 있으므로 이것을 따로 분류하면 (25)의 “-고”는 “-고

3"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른다. (각주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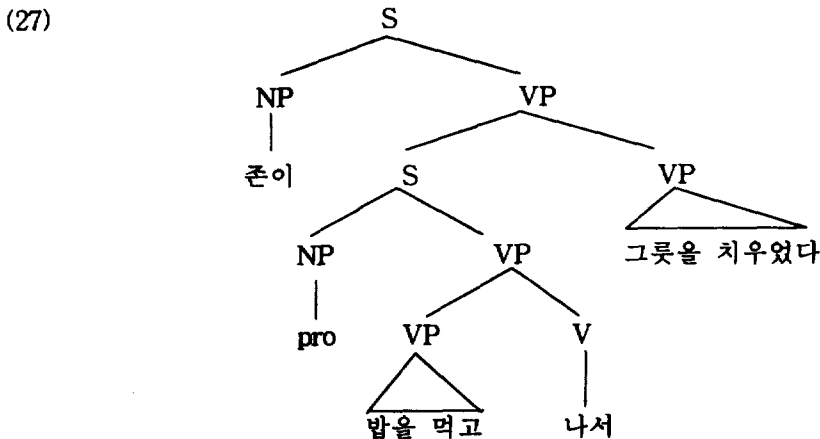
그렇게 볼 수도 있겠으나 우리는 '-고'의 종류를 일단 두 가지로 한정하고 아래 (26)과 같은 문장에 착안하여 "V₁-고 V₂" 구문의 "V₁-고"는 "V₁-고 나서"의 줄임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26) 존이 밥을 먹고 나서 그릇을 치우었다.

그러니까 '먹고'는 '나서'의 동사 '나(다)'의 보어 (complement)가 되는 것이다. "나서"는 이 동사의 한 활용이다. 그런데 이 동사는 '났다, 낫느냐'와 같이 종결형 활용은 잘 쓰이지 않는 것 같고 '나서, 나니, 나자' 등 접속형 활용에만 쓰이는 것이 특징이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먹고 나서'는 '먹은 다음에, 먹은 후에'의 뜻이 되고 (19a)의 '먹고' 역시 이런 뜻을 갖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우리는 (19a)와 (26)은 서로 문체적 변이형의 관계에 있다고 보며 (19a)의 '밥을 먹고'는 (26)의 '밥을 먹고 나서'와 마찬가지로 시간 부사절이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V₁-고 V₂" 구문의 연속 동작의 의미가 동사 '나서'의 의미에서 오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이러한 설명을 위하여 아무런 통사적 장치나 어휘적 제약을 새로 추가할 필요가 없다. 다만 (19)와 (26)을 연결하는 문체 규칙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것을 "나서" 생략 규칙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 규칙을 (26)에 적용하면 (19)를 얻게 된다.

우리는 이제 조세연(1995)와 김종복(1995)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V₁-고 V₂" 구문의 "V₁-고"는 등위절이 아니라 시간 부사절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19a)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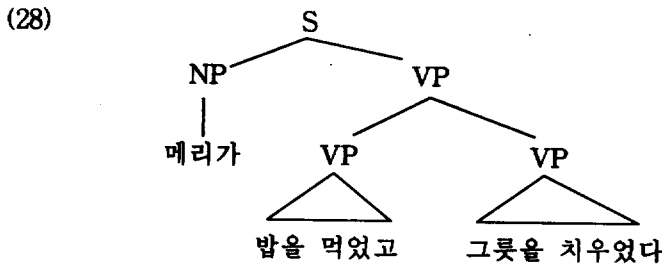


이러한 경우에 '-게', '-고', '-지', '-어' 형 동사의 시제는 주동사의 시제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나서' 부사절의 주동사가 '나서'인데 이 형태에도 시제가 없다. 그 이유는 어미 '-서'도 '-고'처럼 원형 동사에만 붙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사절의

시제는 주절의 시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나서'의 시제가 과거이고 따라서 '먹고'의 시제도 과거가 된다. 부사절의 시제가 중화 되어 있을 경우 그 시제가 주절의 시제에 따라 정해지는 현상은 다른 구문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밥을 먹고 (나서)'는 VP를 수식하는 부사절이다. 동사 '나서'는 VFORM '고'인 VP 보어를 요구한다. 그리고 부사절의 주어는 주절의 주어와 동일하고 시제도 주절의 시제와 같다. 이와 같이 생략된 주어를 복원하고 무시제를 과거 시제로 해석하는 현상은 한국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극히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양쪽에 시제가 나타나는 (20a)는 동위 구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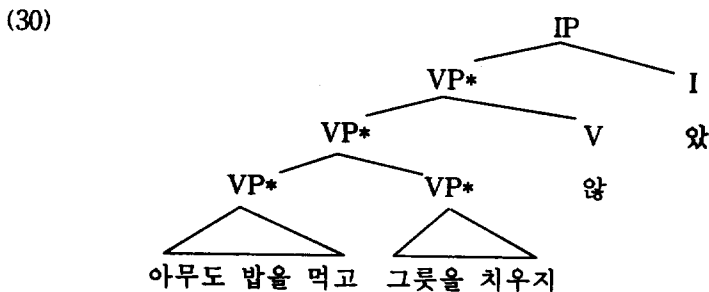


윤혜석(1994)의 두번째 논거는 “아무도” 등 부정 극어 (negative polarity items, NPI)와 관련되어 있다.

- (29) a. 아무도 밥을 먹고 그릇을 치우지 않았다.
- b. *아무도 밥을 먹었고 그릇을 치우지 않았다.
- c. *아무도 밥을 먹었고 메리가 그릇을 치우지 않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아무도'는 긍정문에는 쓰일 수 없고 부정문에만 쓰인다. 그런데 (29b)와 (29c)는 부정문인데도 왜 비문인가? 윤혜석 (1994)은 c-command 장치를 이용하여 이것을 설명했다. NPI '아무도'는 부정어 '않'에 c-command 되어야 한다는 제약을 세우고 (21a)의 '않'은 '아무도'를 c-command하므로 정문이고 (29b,c)의 '않'은 그것을 c-command하지 못하므로 비문이라고 설명했다.

(29a)는 소절 VP* 이접인데 반하여 (29 b,c)는 IP 이접이다.



c-command 와 같은 개념을 동원할 필요도 없으며 그 보다 훨씬 간단 명료하다. (29a)의 ‘밥을 먹고’는 부사절이고 (29b,c)의 ‘밥을 먹었고’는 등위문의 제1 절(first conjunct)이다. 그리고 (29a)에서는 ‘아무도’가 주절 ‘그릇을 치우지 않았다’의 주어이고 (29b,c)에서는 ‘아무도’가 등위문의 제1 절 ‘밥을 먹었고’의 주어이다. 그러므로 전자는 정문이고 후자는 비문이다. 또 (33)는 그 안의 부사절 ‘*아무것도 먹고’가 비문이므로 비문이다.

이런 상황은 ‘먹고 나서’ 구문에서도 꼭 같이 일어난다.

(34) a. 아무도 밥을 먹고 나서 그릇을 치우지 않았다.

b. *아무도 밥을 먹었고 나서 그릇을 치우지 않았다.

우리의 설명으로는 (34a)의 NPI ‘아무도’는 ‘밥을 먹고 (나서)’와는 무관하다. 그것은 부정문 주절 ‘그릇을 치우지 않았다’와 관계할 뿐이다. 실제로 부사절 ‘밥을 먹고 (나서)’는 긍정문이다. 이는 이 문장의 뜻이 뒷받침 한다. (29a)나 (34a)는 누군가가 밥을 먹은 다음에 그릇을 치우지 않은 상황을 표현한 것이지 밥을 먹지도 않고 그릇을 치우지도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뒤섞기 현상도 부사절 분석으로 쉽게 설명된다.

(35) a. 존이 책을 읽고 밥을 먹었다.

b. 존이 밥을 책을 읽고 먹었다.

c. 밥을 존이 책을 읽고 먹었다.

d. 책을 읽고 존이 밥을 먹었다.

e. 책을 읽고 밥을 존이 먹었다.

f. *존이 책을 밥을 읽고 먹었다.

g. ?*책을 존이 밥을 읽고 먹었다.

h. *책을 밥을 존이 읽고 먹었다.

시간 부사절 ‘책을 읽고’ 속으로 이질적 요소가 끼어들어 그 정체성을 파괴하지 않는 한 다른 요소들을 자유로이 뒤섞을 수 있다. (35f)는 ‘*책을 밥을 읽고’가 비문이어서, (35g,h)는 ‘?*밥을 읽고’와 ‘책을 먹었다’가 기이해서 각각 비문이 된다. 등위문 제약 Coordinate Structure Constraint (CSC)와는 아무 상관 없다. 이 장치로는 (35 b,c,d,e)를 설명할 수 없다. 이들은 모두 CSC를 위배하는 데도 정문이기 때문이다. 정말 CSC를 위배한 결과 비문이 발생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36) a. 존이 책을 읽었고 밥을 먹었다.

b. *밥을 존이 책을 읽었고 먹었다.

이와 같이 (35)의 무시제 ‘V-고’는 부사절로, (36)의 유지제 ‘V-고’는 등위문으로 보면 CSC를 유지하면서 뒤섞기 현상도 잘 설명할 수 있다.⁶⁾

이상에서 우리는 윤혜석(1994)가 제시한 기능 범주의 통사적 독립성에 관한 논거를 검토했다. 그는 거기에서 등위문, 부정문, 뒤섞기 현상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기능 범주의 통사적 독립성을 증명하려고 했으나, 우리는 그러한 분석 자체가 문제가 있으며 그 보다 나은 대안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한 새로운 분석에서는 기능 범주들이 모두 단어의 일부가 되어 어휘 완전성 가설을 철저히 지킬 수 있다는 것도 보여 주었다. 아무튼 등위문, 부정문, 그리고 뒤섞기 현상에 바탕을 둔 도출적 접근을 위한 논거는 기능 범주가 통사적으로 독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경험적 증거가 될 수 없다. 우리는 2.1에서 활용 어미 (=기능 범주)가 통사적 단어 syntactic word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구성 성분 분석의 타당성 여부를 가지고 논증하려고 했으나 그것 역시 경험적 증거가 될 수 없고 이론적 논거일 뿐이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러니까 기능 범주가 통사적 단어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이를 결정적으로 지지하는 경험적인 통사적 논거는 아직 없는 셈이다.

그러나 형태 음운론적으로는 기능 범주가 통사적 단어가 될 수 없다는 경험적 증거가 확실하다. 앞으로 우리는 이 입장에서 이에 대한 제약 기반적 constraint-based 접근을 시도한다.

3. 제약 기반의 형태 통사론 Constraint-Based Morphosyntax

이제 우리는 HPSG 이론에 입각한 비도출적인 어휘 형성 방법을 논의한다. 우리는 이것을 그 두드러진 특징을 부각시켜 제약 기반의 형태 통사론 (Constraint-Based Morphosyntax, CBM) 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CBM에 의한 한국어 관계 연구는 Pollard와 Sag (1987)의 이론에 바탕을 두고 박병수 (1988, 1989a, 1989b), 박 병수, 안상철, 강범모 (1991), 장석진 (1989) 등에서 출발했으나, 본격적인 한국어 CBM은 김종복 (1992)에서 최초로 시도 되었다. 우리는 대체로 김종복 (1992)에 따르되 때로 정찬 (1995)와 조세연 (1996)을 참고하여 논의를 진행시키려고 한다.

먼저 한국어 형태론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 보고 기존의 방법론을 검토하기로 한다. 한국어의 활용 어미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동사가 통사 구조에 나타날 때는 반드시 '-다, 어라, 느냐' 등의 법 접사나, '-게, 고, 지, 어' 등 보문자 접사, 혹은 '-은, 는, 을' 등 관형 수식 접사에 의해서 굴절되어야 한다.

- (37) a. 매리가 그릇을 *치우/치운다, 치우느냐,
 b. 매리가 *치우/치울, 치운, 치우는 그릇.
 c. 매리가 그릇을 *치우/치우고 있다, *치우/치우게 되었다, *치우/
 치우지 않았다,

6) 형태소 '-고'는 대안으로 등위절의 '-고'와 infinitive 유형의 '-고'에다 시간 부사절의 '-고'를 추가하면 세 가지의 '-고'를 인정할 수 있다.

둘째, 굴절 접사들이 함께 첨가 될 때에는 서로 엄격한 순서 제약을 준수한다.

(38) 치우-었-다/*치우-다-었, 치우-시-었-느냐/*치우-었-으시-느냐,

셋째, 이들 접사들이 서로 배타적인 경우가 있다. 가령 두 개의 법 접사나 보문자 접사가 함께 일어 날 수 없고, 관형 수식 접사는 더 이상의 시제 굴절어미를 허용하지 않는다.

(39) *치우-느냐-다, *치우-게-고, *치우-었-는, *치우-었-어라

이러한 속성들을 포착하기 위한 올바른 문법 기술 방법은 무엇일까? 지금까지 생성 문법에서 제시된 분석 방법들을 크게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가 형판적 분석방법 (templatic approach)이고, 둘째가 변형 문법에서 나온 도출적, 통사적 분석 방법이다. 앞에서 우리는 후자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미 논의하였다. 주형적 방식이란 어떤 것인지 간단히 살펴 보고 본론에 들어 가기로 한다.

형판 방식은 근본적으로 전통 문법의 형태론 방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방식의 골짜는 특정 접사가 특정 위치에서만 발생하도록 하는 평면적(flat) 형판을 짜는 것이다. 이들 형판은 칸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 칸들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일직선으로 배열되어 있고 한 칸에 하나의 형태소가 들어 가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러한 형판에다 형태소들을 쏘아 부으면 그 형판에 해당하는 단어가 형성되어 나온다. 간단한 예를 몇 개만 보자.

- (40) a. 종결형 형판: 동사 어근+(존대 어미)+시제 어미+종결형 어미
b. 수식형 형판: 동사 어근+관형형 수식 어미

일견 이 종결형 형판으로 종결형 단어들을 다 형성해 낼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이대로는 '*치우-시-어라, *치우-었-자, *치우-겠-십시오' 등속의 수 많은 비문을 막지 못한다. 수식형 형판은 '치우-는, 치우-ㄴ, 치우-ㄹ' 등 표현을 올바르게 생성하지만 특수 조사가 첨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치우는-조차, *치울-도, 치운-뿐' 등의 비문을 차단하기 위하여 형판을 개조하든가 새로 만들든가 하지 않으면 안된다.

접사들의 결합 가능성을 포착하고 엄격한 공기제약과 상호 배타성을 설명하는 데에 얼마나 많은 수의 형판이 필요한지, 얼마나 많은 조건들을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현재로서는 막연하다. 한국어 형태론 형판 방식은 1980년대 중반에 김영석 (1985) 등이 극히 초보적인 수준에서 이 문제의 단초를 거론한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는 형편이다. 김종복 (1992)는 형판 이론이 원리상 잉여성의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어라'와 '-자'와 같은 명령형과 청유형 종결 어미는 다른 종결형 접사와 같은 위치를 차지하지만, 이들은 오직 동사 어근 하고만 결합할 수 있다. 그래서 앞서서도 든 예 '*치우-

'치우-었-자'는 비문이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38a)의 시제 어미를 선택적 요소로 하여 종결형 형판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고 해서 이 문제점이 해결 되지 않는다. '치우자'와 같은 올바른 단어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치우-었-자'를 여전히 허용하기 때문이다.

- (41) a. 동사 어근+(존대 어미)+(시제 어미)+종결형 어미
 b. 동사 어근+'어라'
 c. 동사 어근+'자'

'*치우-었-자, *치우-었-어라' 따위를 차단하려면 (40) 형판에 단서를 달고 종결형 어미 '-자'와 '-어라'는 동사 어근 다음에만 일어나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아니면 (41b,c)와 같은 형판을 하나씩 더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어느 쪽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형판에 일일이 조건을 다는 것은 형판 방식의 일반성을 포기하는 것이고, 접사마다 개별적인 형판을 만드는 것은 처음부터 형판 방식의 취지를 저버리는 것이 된다.

어미 '-자'나 '-어라'는 그 자체가 동사 어근 뒤에 밖에 올 수 없는 내재적 제약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내재적 조건 외에 형판이라는 장치를 따로 둔다는 것 자체가 잉여적이다. 같은 조건을 두가지 다른 종류의 제약을 가지고 중복적으로 기술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41b,c)는 사실상 '-어라' 또는 '-자'의 내재적 (또는 어휘적) 공기 제약을 형판 형식으로 표현한 데 불과하다.

형판을 만들어 형태소들의 결합 가능성과 공기 제약을 일반적으로 포착하려고 하지만, 이 장치의 힘이 너무 강해서 언제나 초과 생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막으려면 세부적인 제약을 개별적으로 가해야 되는데 이러한 제약의 수는 거의 형태소의 종류만큼이나 많게 되어 잉여성과 중복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순수한 형판 방식은 형판의 힘이 너무 강해서 문제이고 개별적 조건을 명세화하면 힘이 너무 약해서 문제다.

이러한 진퇴양난에서 탈출하는 한 가지 방법이 CBM이다. CBM은 형판 방식에서 탈피하여 형태소들의 결합 가능성과 공기 제약을 그 형태소 자체의 내재적 조건으로 직접 파악하는 방법을 개발한다. 이를 제약 기반의 통사론이 하위 범주화 subcategorization 를 다루는 방식과 비교해 볼 수 있다. 가령 영어 타동사 hit은 직접 목적어 명사구를 보어로 요구한다. 공기 제약의 시각에서 보면 hit는 반드시 명사구 앞에 와야 한다고 말해도 같은 말이다. 그런데 이 현상을 통사론에 반영하기 위하여 고전 생성 문법에서 했던 것처럼 구구조 규칙 (42a)를 세우고 또 어휘부에서 하위 범주 자질 (42b)를 hit의 어휘 항목에 부여한다고 하자.

- (42) a. VP-->V NP
 b. +[__ NP]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런 방법은 한 가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두 개의 별개 장치를 잉여적으로 쓰고 있어서 문제가 되므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론 수정이 시도

되었던 것이다. HPSG와 같은 제약 기반의 통사론에서는 (42a)를 좀더 일반적인 원리로 통합 격상 시키고 (42b)를 어휘적 속성으로 어휘 항목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보면 CBM이란 형판 방식을 버리고 형태소의 개별적 공기 제약을 그 형태소의 어휘적 조건으로 다루는 방법을 택하는데 이는 HPSG의 제약 기반의 정신에 잘 부합되는 방식이다.

그런데 단어나 형태소들의 다양한 개별적 제약들을 모두 일일이 어휘적 속성으로 반영하다 보면 같은 제약이 여기 저기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 예상된다. 어휘부는 엄청난 중복성의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중복성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유형 위계 type hierarchy 와 어휘 규칙 lexical rules 이다.

유형 위계의 생각은 단순하고 근본적이다. 예를 들어 'John disappeared'의 disappear, 'hit the ball'의 hit, 'try to do it'의 try 그리고 'persuade John to do it'의 persuade 등 네 단어를 생각해 보자. 이들은 각기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어휘적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공통적인 정보도 있고 특정 동사 특유의 정보도 있다. 이들은 모두 통사 범주가 동사이고, disappear 와 try 는 자동사, hit 과 persuade는 타동사이다. 그리고 hit은 NP를 보어로 취하는 반면에 try는 to 부정사를 보어로 취한다. 그런가 하면 persuade는 NP와 to부정사를 보어로 취한다. 이런 정보들이 모두 해당 동사의 어휘 항목에 명세화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동사라는 통사 정보 ([CAT verb])는 네 동사의 어휘 항목에 다 명세화 해야 하고, 자동사라는 정보 ([TRANSITIVE -])는 disappear 와 try 의 항목에 표시해야 하고, NP 보어를 취한다는 하위 범주 정보 ([COMPS <NP>])는 모든 타동사의 어휘 항목에도 다 명세화 해야 한다.

(43) a. disappear: [CAT verb]
 [TRANSITIVE -]
 [COMPS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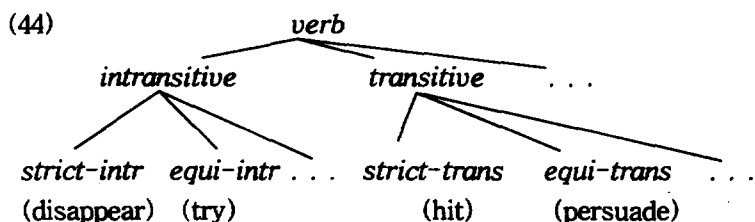
b. try: [CAT verb]
 [TRANSITIVE -]
 [COMPS <to 부정사>]

c. hit: [CAT verb]
 [TRANSITIVE +]
 [COMPS <NP>]

d. persuade: [CAT verb]
 [TRANSITIVE +]
 [COMPS <NP to 부정사>]

[CAT verb] 정보는 4회, [TRANSITIVE -] 정보는 2회, 또 [TRANSITIVE +] 정보도 2회 나타났다. 그런데 실제의 어휘부에서 가령 동사의 수가 이만 개라고 하고 자동사가 만 개, 타동사가 만개라고 가정한다면, [CAT verb] 자질은 이만 번, [TRANSITIVE -] 자질과 [TRANSITIVE +] 자질은 만 번씩 반복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명세화가 반복되는 것은 이론상 막대한 손실이다. 이것을 막는 방법이 유형 위계의 방식이다.

이 네 가지 종류의 동사들에 대하여 각기 다른 명칭을 부여하고 다음과 같이 분류 체계를 수립한다고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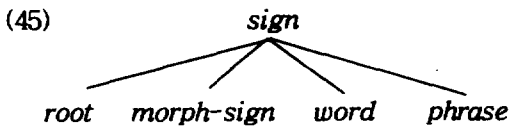
이와 같이 분류한 단어들의 집단을 유형 *type* 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유형 위계에서 위에 있는 것을 상위 유형 *supertype*, 아래에 있는 것을 하위 유형 *subtype* 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위 유형은 상위 유형이 가진 모든 어휘적 성질을 다 가지며 거기 덧붙여 상위 유형에 없는 새로운 성질을 가진다는 점이다. 즉 *equi-intr* 유형은 *intransitive* 유형이 갖는 모든 성질을 다 가지며 *intransitive* 유형은 *verb* 유형이 갖는 모든 성질을 다 가진다. 마찬가지로 *equi-trans* 유형은 *transitive* 유형이고 또 *transitive* 유형은 *verb* 유형이다. 그러나 역은 성립하지 않아 모든 *verb* 유형이 다 *intransitive* 유형이 아니며 모든 *intransitive* 유형이 다 *equi-intransitive* 유형이 아니다. 이러한 관계를 상위 유형이 하위 유형을 포섭 *subsume* 하는 관계라고 한다. 포섭 관계를 체계화한 분류표가 곧 유형 위계이다.

이러한 유형 위계를 이용하면 앞에서 지적한 어휘 정보의 중복 표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동사 'persuade'의 어휘 항목에는 (41d)와는 달리 자질을 명세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형 *equi-transitive* 만 표시해주면 된다. 이 자질을 가진 단어는 유형이 *equi-transitive* 이고 *equi-transitive* 유형은 *transitive* 유형이므로 [TRANSITIVE +] 자질을 갖게 되고, *transitive* 유형이면 또한 *verb* 유형이므로 [CAT verb] 자질을 갖추게 된다. 다시 말하면 그 단어가 속해 있는 유형 중 가장 하위 유형 (가장 구체적인 자질) 만 명세화해 놓으면 그 나머지 자질들은 유형 위계의 포섭 관계에 의하여 전부 예측 될 수 있는 것이므로 (또는,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이 어휘 항목에 다시 나타낼 필요가 없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verb* 유형은 [CAT verb] 자질을 갖는다는 식으로 모든 유형이 무슨 자질을 갖는지를 유형 위계에 밝혀 두어야 한다. 이 과정을 HPSG에서 자질 선언 *feature declaration* 이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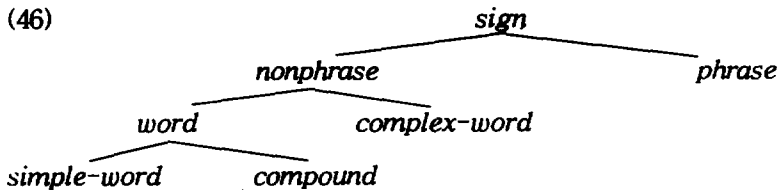
가령 *verb* 유형에는 [CAT verb]라는 자질을 선언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 나머지

모든 하위 유형에는 이 자질을 다시 선언해줄 필요가 없다. 유형 위계에서는 하위 유형은 상위 유형의 모든 정보를 그대로 가지기 때문이다. (하위 유형이 상위 유형의 자질을 “상속한다 inherit”고 표현한다.) 자질 상속 feature inheritance에 의하여 *verb* 유형의 하위 유형들은 자동적으로 [CAT verb]를 부여받기 때문에 그 자질을 일일이 다른 하위 유형에 선언해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유형 위계와 자질 선언을 갖춘 어휘부를 수립할 때, 앞에 예로 든 동사 이만 개가 있는 어휘부의 경우에 이만 개의 [CAT verb] 자질 표시와 만개의 [TRANSITIVE +] 자질 표시와 [TRANSITIVE -] 자질 표시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CBM은 이러한 통사론의 방식을 형태론에 적용한다. Pollard와 Sag (1987, 1994)의 이론적 토대 위에 김종복 (1992)은 한국어 CBM의 실예를 보여준다. 이는 CBM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최초의 시도로 평가 받고 있다. 그는 먼저 최상위 유형 *sign*을 *morph-sign*, *word* 그리고 *phrase*로 분할 할 것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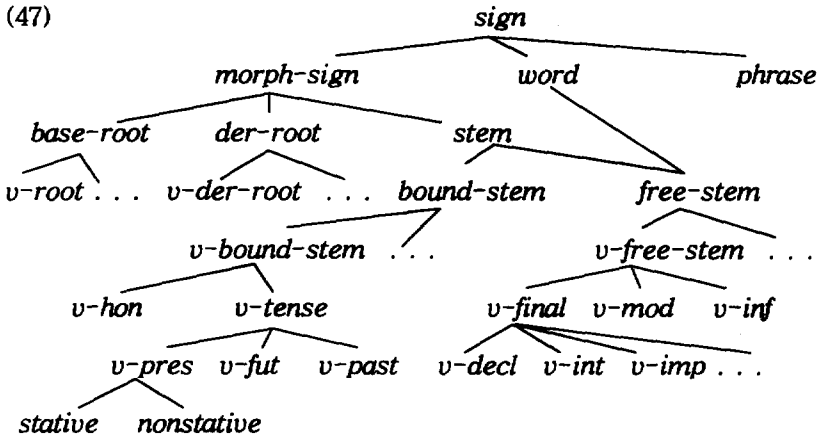


Pollard 와 Sag (1987)의 *sign* 유형 밑에는 *word*와 *phrase* 두 하위 유형밖에 없으나 김종복(1992)는 한국어 형태론을 다루기 위하여 *root* 와 *morph-sign*을 더 보태었다. 그런데 정찬(1995)의 유형 위계는 이와 다소간의 차이를 보인다.



(44)의 *complex-word* 유형은 ‘읽고, 읽게, 읽지, 읽어’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 김종복(1992)와 정찬(1995)의 방식의 차이점은 근본적인 견해의 차이이기 보다 논의의 초점의 차이에서 온 것이다. 전자는 한국어 형태론의 전반적인 문제에 관심을 둔 것이고 후자는 한국어 복합 술어 *complex predicates* 에 대한 통사적 기술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양자의 장점을 절충하는 대안이 가능하겠으나 우리가 여기 제시하는 것은 본격적인 대안이라기 보다는 필요에 따라 양자를 약간 수정 또는 조정한 것이다. 이것이 물론 한국어 형태소 전체를 망라한 것은 아니다. 이 논문의 논의에 직접 관련되는 동사 형태론 *verb morphology*의 유형 위계의 일부들 예시한 것이다.

(47)



der-root=*derivational-root*, *v-root*=*verb-root*

v-der-root=*verb-derivational-root*, *v-bound-stem*=*verb-bound=stem*

v-final=*verb-final*, *v-inf*=*verb-infinitive*, *v-pres*=*verb-present*

v-decl=*verb-declarative*, *v-int*=*v-interrogative*, *v-imp*=*v-imperative*

어휘 형성 과정의 결과 얻는 모든 종류의 표현이 *morph(ological)-sign* 유형이다. 그 밑에 세 가지 하위 유형이 있다. '먹, 읽, 길, 짭, 밥, 책' 같은 어근이 *base-root*이다. 어근에 파생 접사가 붙은 '먹-이' '읽-히' 같은 것이 *der(ivational)-root*이다. 그리고 *stem* 유형은 파생 접사나 굴절 접사가 붙는 모든 종류의 단어와 단어의 부분들을 전부 포함한다. *base-root*의 하위 유형은 '밥, 책' 같은 *n(oun)-root* 유형, '먹, 읽' 같은 *v(erb)-root* 등이다. *stem* 유형의 하위 유형은 *bound-stem*과 *free-stem*이다. *bound-stem* 유형과 *der-root* 유형은 양자 공히 굴절 접사나 파생 접사가 더 첨가 되어야 문장의 한 독립된 요소로 일어날 수 있는 유형이고 *free-stem*은 더 이상의 접사가 첨가될 수 없는 (또는 첨가될 필요가 없는) 그 자체로서 독립된 요소이다.

유형 위계에서의 이런 관계로써 단어 *word* 유형을 정의할 수 있다. 즉 단어란 *free-stem* 유형이다. 그런데 *free-stem* 유형은 또한 *stem* 유형이기도 하므로 그것은 또한 *morph-sign*이기도 하다. 즉 *morph-sign*의 네 가지 하위 유형 *base-root*, *der-root*, *bound-stem*, *free-stem* 중에서 *free-stem*이 단어이다. 다시 말하면, 단어란 한편 *morph-sign* 유형의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굴절과 파생 등의 형태론적 절차에 의하여 형성되며 또 다른 한편 *free-stem* 유형이므로 그 자체로서 완전하고 독립적인 최종 형태이다. *free-stem*의 하위 유형은 *v(erb)-free-stem*, *n(oun)-free-stem* 등이 된다. *verb-free-stem*에는 세 가지 하위 유형이 있다. '먹-었-다, 읽-으시-겠-다, 읽-었-느냐, 읽-으시-는가, 잡-아라, 잡-자' 등과 같은 *v(erb)-s(entence)-final(-form)*, '먹-는, 읽-은' 등과 같은 *v(erb)-mod(ifier-form)*, 그리고 '먹-게, 먹-고, 읽-지, 읽-어' 등 *v(erb)-inf(initive-form)*이 있다. *verb-final* 유형의 하위 유형에는 서술형, 의문형, 명령형 등이 있다.

word 유형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CBM의 어휘 완전성 가설 Lexical Integrity Hypothesis를 자연스럽게 수용하게 해 준다. 유형 위계도에 의하여 어휘 완전성 가설을 다음과 같이 수립할 수 있다.

(48) 어휘 완전성 가설 Lexical Integrity Hypothesis

단어란 *word* 유형과 그 하위 유형을 가리킨다. 통사 구조의 최소 단위는 이 유형들이다.

즉 “The type *free-stem* IS A *word type*.” 이처럼 *word* 유형과 ISA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오직 *free-stem* 유형 뿐이다. 이 유형만이 통사론의 단위가 된다. 어휘 형성 과정이 끝나 *free-stem* 유형이 만들어 지면 통사론의 여하한 규칙도 이 단위의 내부를 들여다보고 그것을 건드릴 수 없다.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은 오로지 어휘 (형성) 규칙 뿐이다. 이와 같이 해서 *bound-stem* 유형, *base-root* 유형, *derivational-root* 유형 등은 하나의 독립 단위로서는 통사구조에 등장할 수 없다.

다음에 *bound-stem*의 하위 유형은 *v(erb)-bound-stem*, *noun-bound-stem* 등이고, 전자의 하위 유형은 ‘읽-으시, 잡-으시’ 등 *v(erb)-hon(norific-stem)* 과 ‘먹-는, 먹-었, 읽-겠, 잡-았’ 등 *verb-tense-stem* 이 있다.

다음에 필요한 사항은 자질 선언이다. 각 유형이 가진 특성을 자질 선언의 방식으로 밝혀 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morph-sign* 유형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v-final* 유형과 *v-declarative* 유형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를 위한 자질이 STEM과 AFFIX이다. 이 자질은 형태소 유형 (또는 형태소)를 값으로 취한다. 이 자질에 각기 필요한 값을 선언해 줌으로써 해당 유형이 갖는 특성을 밝힌다. 어떤 유형이 무슨 어간에 무슨 접사가 붙어서 형성되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가령 *v-decl* 유형은 다음과 같은 자질을 부여 받는다.⁷⁾

$$(49) \left[\begin{array}{l} v\text{-decl} \\ \text{PHON } f_{\text{decl}} ([1].[2]) \\ \text{STEM } [1]v\text{-bound-stem} \\ \text{AFFIX } [2] \text{다} \end{array} \right]$$

v-decl 유형은 어간이 *v-bound-stem* 유형이며 거기에 어미 ‘다’가 붙어야 한다는 제약을 표기한 것이다. *v-bound-stem* 유형에는 *v-hon*과 *v-tense* 유형이 있으나 어느 유형이라도 ‘다’의 어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잡-으시-다, 읽-으시-었-다, 먹-는-다, 먹-었-다’ 등의 *v-decl* 유형의 단어가 성립된다. 어간과 어미를 가지고 실제의 형태를 만드는 일은 어휘 규칙이 한다. 자질 PHON의 값인 f_{decl} 라는 함수가 그 일을 하는 어휘 규칙이다.

7) 원리상 AFFIX 값을 명시하는 것은 잉여적이다. 왜냐하면 PHON의 값 f_{decl} 에서 종결형 어미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 잉여성을 해소하려면 AFFIX 자질을 없애든가 PHON의 값을 함수 f_{decl} 로 설정하지 않고 STEM 값과 AFFIX 값을 단순히 연결시키는 작용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설명의 편의상 이대로 두고 잉여성을 묵인하기로 한다.

(50) f_{decl} ([1]*v-bound-stem*,[2]다)

이 규칙은 *v-bound-stem* 유형의 한 표현과 어미 '다'를 주면 이 둘을 결합하여 새로운 표현을 형성한다. 예컨대, '먹었'과 '다'를 입력하면 '먹었다'를 출력한다. (Pollard와 Sag (1987) 8장 참조.) 어휘 규칙에 쓰인 함수 f 는 실제로 형태 음운 규칙이다. 안상철 (1996)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형태 음운 규칙들이 이 함수의 실제 내용이 될 것이다.

v-imp 유형의 STEM 제약은 *v-decl* 유형의 그것과 다르다.

$$(51) \left[\begin{array}{l} v-imp \\ PHON f_{imp}([1],[2]) \\ STEM [1]v-root \\ AFFIX [2]어라 \end{array} \right]$$

명령 종결형 단어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 어간이 *v-root* 유형이어야 한다는 STEM 제약을 수립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먹-는-어라, *읽-었-어라' 따위의 발생을 막고, '먹-어라, 읽-어라' 등의 명령형을 허용한다.

또 *verb-derivational-root* 유형은 아래와 같은 피동형과 사동형의 하위 유형이 있고 그것은 각기 나름대로의 제약을 받는다.

$$(52) \quad \begin{array}{c} \text{verb-derivational-root} \\ \hline \left[\begin{array}{l} passive \\ PHON f_{pass}([1],[2]) \\ STEM [1]v-root \\ AFFIX-PASS [2]히 \end{array} \right] \quad \left[\begin{array}{l} causative \\ PHON f_{caus}([1],[2]) \\ STEM [1]v-root \\ AFFIX-CAUS [2]이 \end{array} \right] \end{array}$$

이들 제약에 따라 '먹-히, 잡-히, 읽-히' 등의 *passive* 유형과 '먹-이, 잡-히, 읽-히' 등의 *causative* 유형이 성립한다. '감기다, 울리다, 낮추다' 등 불규칙 형태의 경우는 불규칙 형태를 다루는 방법이 따로 있어야 한다. 피동형 어휘규칙 f_{pass} 와 사역형 어휘규칙 f_{caus} 가 적용될 때, 예컨대 '감(다)'의 경우, '*감히다' 나 '*감이다'를 배제하고 '감기다'를 생성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박병수 등 (1991)의 제안에 따라 어휘 항목에 [AFFIX-PASS 기] 및 [AFFIX-CAUS 기]를 부여해 두는 방식을 취한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f_{pass} 와 f_{caus} 가 적용될 때 AFFIX-PASS와 AFFIX-CAUS의 값으로 '히'를 택하지 않고 '기'를 택하게 한다. 어휘 항목에 이런 식으로 피동형이나 사동형 어미가 주어지지 않을 경우에만 (즉 규칙적인 경우에만) (52)에 주어진 대로 '히'와 '이'를 택하는 것으로 한다.

앞에서 지적한 바 있지만, 형태소들 간에는 특별한 순서가 있고 특정 형태소들 간에

는 서로 용납하지 않는 것들도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가령 '잡-히-시-었-다'의 순서가 어떻게 보장되는가? 그리고 '*잡-았-게 (되었다), *잡-으시-어 (보았다)' 따위의 발생을 어떻게 차단하는가? 이런 문제도 유형 위계를 수립하고 각 유형의 STEM과 AFFIX에 개별적인 제약을 선언해 주는 CBM의 방법이 잘 해결할 수 있다.

'잡히시었다'는 *v-declarative* 유형이다. 유형 위계에 주어진 이 유형의 STEM과 AFFIX 제약을 보면 '다'는 *bound-stem* 유형을 어간으로 취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bound-stem* 유형은 *v-honorific* 유형과 *v-tense* 유형을 하위 유형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유형의 STEM과 AFFIX 제약을 적절히 정의해 주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53) \left[\begin{array}{l} v\text{-tense} \\ \text{PHON } f_{\text{tense}}([1],[2]) \\ \text{STEM } [1]v\text{-root OR } v\text{-der-root OR } v\text{-hon} \\ \text{AFFIX } [2]\text{었} \end{array} \right]$$

$$(54) \left[\begin{array}{l} v\text{-hon} \\ \text{STEM } v\text{-root OR } v\text{-der-root} \\ \text{AFFIX } \text{시} \end{array} \right]$$

v-tense 유형은 *v-root* 유형이나 *v-der-root* 또는 *v-hon* 유형을 어간으로 취한다. 그리고 *v-hon* 유형은 *v-root* 유형이나 *v-der-root* 유형을 어간으로 취한다. 따라서 어근 '잡'과 존대 어미 '시'와 과거 어미 '었'과 피동 어미 '히'가 결합하는 모든 가능한 경우 중 정문의 *v-tense* 유형은 아래 (55)의 네 가지 뿐이다.

(55) a. 잡-았 b. 잡-히-었 c. 잡-으시-었 d. 잡-히-시-었

(55a)는 *v-root* 유형을 어간으로 하는 *v-tense* 유형이고, (55b)는 *v-der-root* 유형을 어간으로 하는 *v-tense* 유형이며 (55d)는 *v-hon*을 어간으로 하는 *v-tense* 유형이다. 그리고 (55d)는 좀더 복잡적이다. 즉 그것은 *v-root*를 어간으로 하는 *passive* 유형을 어간으로 하는 *v-tense* 유형이다. 이 이외의 모든 경우는 (53), (54), (52)에 밝힌 *v-tense* 유형과 *v-hon* 과 *passive* 유형의 제약이 차단한다.

(56) a. *았-잡 b. *잡-았-히 c. *잡-았-으시 d. *잡-으시-히-었

(56a)는 *v-tense* 유형이 *v-root* 유형을 어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제약을 위반한 것이다. (56b)는 *passive* 유형의 어간은 *v-root* 유형이어야 한다는 제약을 위반한 것이다. (56c)는 *v-hon* 유형의 제약을 위반한 것이다. (56d)는 '*잡-으시-히'가 *passive* 유형의

제약을 위배하여 비문이고 또한 그런 비문이 '었'의 어간이 될 수 없으므로 *v-tense* 유형의 제약도 위배한다.

(55)의 예들은 모두 *v-bound-stem* 유형에 속하는 것이므로 *v-declarative* 유형의 STEM 제약을 만족시킨다. 그러므로 (57)의 예들이 모두 정문이다. (56)의 예는 어느 것도 *v-bound-stem* 유형이 아니므로 *v-declarative* 유형의 어간이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잡-았-으시]-다' 등등.)

- (57) a. [잡-았]-다 b. [잡-히-었]-다
c. [잡-으시-었]-다 d. [잡-히-시-었]-다

유형 위계와 어휘 규칙을 활용하는 CBM은 각 어미가 무슨 어간과 결합하는가만을 밝힘으로써 전반적인 순서 제약과 공기 제약을 정확히 기술할 수 있다. 어간과 어미의 관계는 항상 이분지 binary 관계이다. 어간이 어간과 어미의 복합체일 수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어간과 어미의 복합체가 반복되는 복합체이다. 그러나 아무리 복잡한 복합체일지라도 근본적으로 어간과 어미의 복합체일 뿐이다. 한국어의 경우 어간에 어미가 오른쪽에 축적적으로 첨가되므로 왼쪽 가지 뻗기 *left branching*의 구조를 이룬다.

- (58) [. . . [[stem]_{type-1}-suffix₁]_{type-2}-suffix₂]_{type-n} . . . -suffix_n]

어간이 어미를 앞선다는 하나의 순서 제약과 각 어미가 무슨 유형과 결합하는지를 밝히는 STEM과 AFIX 제약만으로 형태소들의 순서와 공기 관계를 기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어 형태소 연결의 구조는 (58)로 나타낼 수 있다. suffix₁은 유형이 type₁인 어간에 붙고, suffix₂는 유형이 type₂인 유형에 붙고 suffix_n은 유형이 type_n인 어간에 붙는다. 이런 방식으로 각 어미는 자기 자신의 STEM 제약만 지키면 된다. 그보다 더 앞에 있는, 또는 그 뒤에 있는 어간이나 어미에 대하여 전혀 상관할 필요가 없다. 이 간편한 방법이 성립하는 데에는 유형과 유형 위계의 수립이 필수적이다. CBM의 유형 위계가 없이는 이것은 불가능하다. 전통적인 형편 방식이 다루기 어려운 부분을 CBM이 성공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은 유형 위계와 유형에 부여하는 자질 선언이 있기 때문이다.

유형 위계와 어휘 규칙을 갖춘 CBM이 어휘부의 일부가 되면 모든 단어 즉 *free-stem* 유형은 어휘부에서 형성되고 이들이 통사부에 참여할 때는 분해될 수 없는 (또는 분해될 필요가 없는) 통사 단위로 등장할 수 있다. 가장 순수한 어휘 완전성 가설을 지킬 수 있고 급진적 어휘주의도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다.

4. 결론: 요약과 이론적 의미

우리는 이 글에서 한국어의 굴절과 파생 어미들의 통사적 위치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어휘 형태부와 통사 부문 syntactic component 와의 관계와 같이 고려하면 이 문

제는 매우 광범위한 문제가 된다. 이 글에서 그 큰 영역을 다 다루지는 못하였으나 우리의 입장 즉 어휘 완전성의 가설을 지키는 CBM의 입장은 분명하다. 곧 어휘 형성의 장소와 방법에 대한 수 많은 입장을 크게 세 가지 모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모든 단어는 어휘부에서 형성된다. 둘째, 일부 단어는 어휘부에서 생성되고 일부 단어는 통사부에서 형성된다. 셋째, 모든 단어는 통사부에서 형성된다.⁸⁾ 우리 CBM의 입장은 물론 첫째 모형이다.

우리는 이 논의 과정에서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논란이 많은 한 문제에 매달려 있었다. 단어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것은 통사구조에 어떻게 등장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단어를 세 가지 각도에서 정의할 수 있다. 첫째, 통사 구조의 최소 단위를 단어라고 정의한다. 이것이 통사적 단어 syntactic word 이다. 여기에 통사 규칙들이 적용된다. 둘째, 형태적 단어 morphological word 는 하나의 어간에 하나의 어미가 결합하여 이룬 단위로서 이 안에서 어휘 규칙과 형태 음운 규칙 (morphologically conditioned phonological rules) 적용된다. 셋째, 음운적 단어 phonological word 는 통사구조와 형태소에 구애됨이 음운 규칙들이 자유로이 적용되는 단위이다. 아래 두가지 표현을 예로 들어 보자.

(59) a. [[[옷]-[있]]-[어요]]

b. [[[옷]-[옷]]-이]

(59a)의 '옷'의 'ㅅ'이 '-있'과 결합하여 "우섯"으로 발음된다. 그러나 이 현상은 (59b)의 '옷'과 '옷' 사이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우솟"이 아니라 "우똥.") 이 현상을 설명하는 규칙을 'ㅅ' 음절화 규칙이라고 하면, 이 규칙은 어간과 어미 사이에서 적용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규칙은 형태적 정보가 있어야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형태 음운 규칙이다. 그래서 '옷-있'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므로 '옷'이 어간이고 '있'이 어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옷-있'은 형태적 단어이다. 다음에는 '옷-있' 자체가 어간이고 '어요'가 어미이며, 여기에 'ㅅ' 음절화 규칙이 적용되어 '우서췌요'로 실현되므로 '옷-있-어요'도 형태적 단어이다. 그러나 '옷-옷'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옷-옷' 자체는 형태적 단어가 아니다. 그러나 조사가 붙어서 '옷-옷-이'가 되면 그것은 물론 형태적 단어이다.

통사적 단어는 이론적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형태소가 통사론의 최소 단위라고 보는 이론에서는 형태소가 통사적 단어가 된다. 형태적 단어 단어를 통사론의 최소 단위로 보는 이론에서는 형태적 단어가 통사적 단어가 된다. 후자의 선택을 취한 것이 어휘 완전성 가설이다.

HPSG는 어휘 완전성 가설을 잠정적 원리로 받아들이고 형태소의 유형 위계 type hierarchy를 수립하고 각 유형이 지니는 특성을 그 유형의 자질로 나타내 줌으로써 제

8) 전상범 (1995) 9장과 10장 참조. 생성 형태 음운론의 다양한 견해들을 이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 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약 기반의 형태 통사론 Constraint-Based Morphosyntax CBM 수립하려고 한다. CBM은 어휘 정보 명세화의 잉여성을 최소화하면서 최대한의 풍부한 어휘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어휘부의 수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국어의 기능 범주들 (활용 어미 포함)은 어간과 결합하여 형태적 단어를 이룬다. 이러한 형태적 단어가 통사 구조의 최소 단위로 나타나는 것이 CBM의 비도출적 방식이다. 이와 달리 그러한 형태적 단어를 분해하여 형태소들을 통사적 단위로 다루는 것이 도출적 방식이다. 우리는 도출적 방식이 몇가지 형태 음운론적 현상을 설명할 수 없었으나 CBM의 비도출적 방식은 이를 무리없이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CBM의 원리적 타당성에 대한 확인 작업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셈이다. 그러나 아직 자료의 구체적인 분석에서 미진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고, 이는 앞으로 한국어 CBM에 대한 폭 넓고 자세한 연구에서 보완해야 할 과제이다.

참 고 문 헌

- 박병수. 1989a. 통합 문법에 있어서의 어휘부의 모형: 영한 기계 번역의 경우. 어학 연구 25-1. 서울대학교 어학 연구소.
- 박병수, 안상철, 강범모. 1991. 영한 기계 번역을 위한 어휘부의 모형 수립. 영어영문학, 37-2.
- 안상철. 1996. 어휘 형성 과정과 제약: 음운적 제약. 언어연구, 14. 경희대학교 언어교육 연구원.
- 장석진. 1993. 정보 기반의 한국어 문법. 서울: 언어와 정보.
- 장석진. 1994. 통합 문법.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전상범. 1995. 형태론. 서울: 한신 문화사.
- Anh, Sang-Cheol. 1989. On the Derivation of Causative/Passive in Korean. In *A Festschrift for Prof. Hey-Sook Lee*. Seoul. Hanshin Publishing.
- Anderson, Stephen. 1982. Where is Morphology. *Linguistic Inquiry* 12, 571-612.
- Aronoff, Mark. 1976. *Word Formation in Generative Grammar*. Cambridge: MIT press.
- Cho, Jae Ohk and Jerry Morgan. 1987. The Interaction of Syntax and Morphology in Korean VP Coordination. In S. Kuno et al. (eds.),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2, 27-39.
- Cho, Young-mee Yu. 1991. A Phonological Constraint on the Attachment of Particles in Korean. In S. Kuno et al. (eds.)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IV.
- Cho, Young-mee Yu and Peter Sells. 1994. A Lexical Account of Inflectional Suffixes in Korean.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4, 119-174.
- Chomsky, Noam. 1995. *The Minimalist Program*. Cambridge, MIT Press.
- Cho, Sae-Youn. 1995. Untensed Phrases in Korean Verbal Coordination. Paper

- presented at the Harvard International Symposium on Korean Linguistics VI.
- Chung, Chan. 1995. *A Lexical Approach to Word Order Variation in Korean*. Doctoral Dissertation, Ohio State University.
- Kim, Jong-Bok. 1992. A Constraint-Based Lexical Approach to Korean Verb Inflections. Ms. Stanford University.
- Kim, Jong-Bok. 1995. *The Grammar of Negation: A Lexicalist, Constraint-Based Approach*.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 Kim, Yeong-Seok. 1985. *Aspects of Korean Morphology*.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Park, Byung-Soo. 1989b. How to Handle Korean Verbal Suffixes: A Unification Grammar Approach. E.-J. Baek (ed.) *Papers from the Six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Linguistics*.
- Pollard, Carl and Ivan Sag 1987. *Information-Based Syntax and Semantics*. CSLI Lecture Series Notes No 13. Stanford CSLI.
- Pollard, Carl and Ivan Sag. 1994.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nd CSLI Publications.
- Sells, Peter. 1995. Japanese and Korean Morphology from a Lexical Perspective. *Linguistic Inquiry*, 26: 277-325 .
- Yoon, Hey-Suk James. 1993. Tense, Coordination and the Clausal Structure in English and Korean. In S. Kuno et al.(eds.)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V.
- Yoon, Hey-Suk James. 1994. Korean Verbal Inflection and Checking Theory. In Heidi Harley and Colin Phillips (eds.) *The Morphology-Syntax Connection*. Cambridge: MITWPL.

경희대학교 문리과대학 영어영문학과